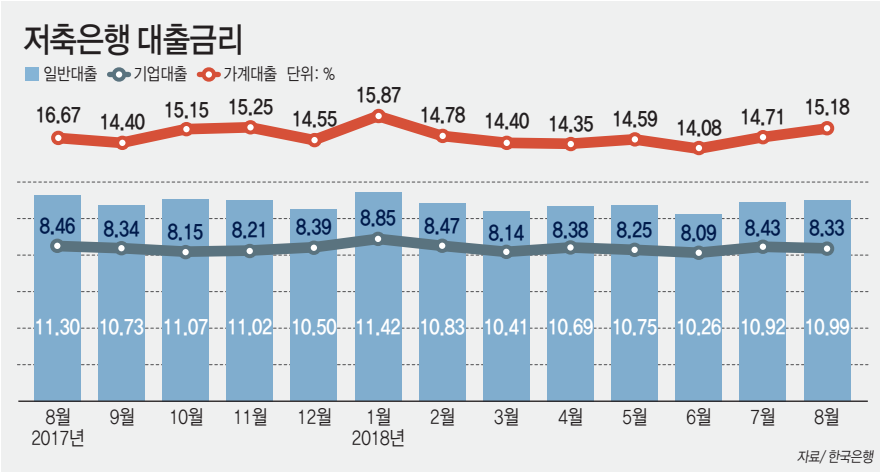
야금야금 오르는 저축은행 금리… 서민들 '죽을 맛'

가계대출 지난해 比 0.63%p 상승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9.28% 급증
취약차주 불법사채 늪 초래할 수도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저축은행을 찾은 취약차주(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는 지난 8월 말 기준 10.99%다. 기업대출은 8.33%, 가계대출은 15.18%로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0.47%포인트(14.71%) 상승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63%포인트(14.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금리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차주라는 것. 올해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5.5%로 비취약차주의 41.5%를 웃돌았다. 금리가 오를수록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차주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의 경제여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저신용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OK·SBI·웰컴·애큐온·JT친애 등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은 9.28%로 지난해보다 1.23%포인트(8.15%)상승했다.

저축은행별 연체율은 JT친애 저축은행 14.96%, 애큐온저축은행 11.27%, OK저축은행 10.42%, SBI저축은행 7.02%, 웰컴저축은행 3.21% 등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10~1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가 가장 큰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9%에서 올해 2분기 10.42%까지 뛰어 올랐다. 기존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 증가가 카드·보험·은행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정책을 통해 연체율을 감소시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연체율에 취약차주들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 등 다른 곳까지 손을 뻗게 되면 경제악화가 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금리인상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고신용자(1~3등급)가 대출을 받아 금리가 낮아지는 특수요인이 없어 평균금리가 올랐을 뿐"이라며 "연말까지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대부업' 새이름 찾아요 대국민 명칭 공모전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을 대신할 명칭을 찾아 나섰다.

대부금융협회는 10월 한 달간 불법 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면서 대부업 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불법 사채업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회사에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공모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70만 원), 우수상 3명(50만 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주택대출 금리 4% 중반대… 5%대 '눈앞'

혼합형 주담대 2~3주간 껑충
美 금리인상에 10bp 이상 ⬆
"11월에 인상 가능성 더 뚜렷"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5%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2~3주 동안 시장금리 상승세를 타고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는 3주 전보다 10~12bp(1bp=0.01%포인트)오른 4%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다음달 1일 기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7~4.67%으로, 3주 전보다 11bp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는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연중 최저인 3.36%~4.56%에 머무르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을 기점으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4~4.55%로, 3주 전(3.33~4.44%)보다 11bp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경우 3.13~4.47%로 역시 같은 기간 12bp 올랐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최고 모두 3주 전 대비 12bp 오른 3.40~4.40%였다. KEB하나은행의 가이드금리는 9.7bp 오른 3.136~4.336%였다.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움직임이다.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들어 한때 5%를 넘나들었지만, 그간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최근 4% 초반까지 빠졌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듯 싶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른 것은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세 번째 금리 인상을 전후해서다.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주요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72%까지 올랐다. 이 추세면 4분기에 금리가 5%의 벽을 다시 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내내 동결 상태다.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시장금리는 인상 결정을 전후해 오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5%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8월 금통위에서 매파(통화긴축)적인 목소리가 두드러졌다"며 "10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11월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NH농협은행

50억 달러 한도 외화CD 발행 가능

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아시아, 유럽 등에서 50억 달러 한도로 외화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를 수시 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기존 보유 중인 MTN프로그램(채권발행) 및 CP프로그램(기업어음발행)에 이어 CD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보해 외화조달 저변을 한층 강화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및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외화CD발행 프로그램 구축으로 적기 외화조달과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현지 금융사 인수 통해 리테일 기반 강화… 1등 다짐"

나는 뱅커다

❹ 김창연 캄보디아 우리은행 'WB파이낸스' 부법인장

지역·고객과 함께 성장… 시너지 기대
조직안정화·소속감·소통문화 등 강조

"중장기적으로 은행으로 전환해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이같은 시너지로 캄보디아 1등 은행으로 성장 시키겠다."

김창연 우리은행 캄보디아 WB파이낸스 부법인장의 포부다.

우리은행의 해외 영업망(점포 수)은 지난해 말 301개에서 410개로 늘어나 세계 20위권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선 지난 2014년 마이크로파이낸스(MFI·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소액대출, 보험, 예·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말리스(Malis)를 인수한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와 WB파이낸스를 통해 현지 영업에 나섰다.

캄보디아는 금융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기대가 높은 국가다.

김창연 WB파이낸스 부법인장(왼쪽 네번째)이 현지 직원들과 WB파이낸스 영업점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김 부법인장은 "캄보디아는 매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 중 약 18%정도만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저축상품 이용자는 5% 미만으로 향후 금융업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산업의 기대수익률도 높다. 예대금리차만 약 7%포인트다. 5년 평균 대출 증가율은 23%, 5년 평균 예금 증가율도 21%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14년 캄보디아 진출 이후 리테일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인수대상을 물색해 왔다.

특히 올해 6월 전국망을 보유한 현지 금융사인 '비전펀드 캄보디아'를 인수해 WB파이낸스를 추가 설립했다. 현재 현지에서 약 1400여명 직원과 전국 106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를 통한 현지화 전략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WB파이낸스는 인수 전인 2017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억6700만달러에 불과했는데 2018년 6월 기준 우리은행이 인수한 후에는 1억7770만 달러로 잔액이 늘었다.

WB파이낸스는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리테일 기반 우량 대출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김 부법인장은 "WB파이낸스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종 특성에 맞게 대부분 리테일 고객이며, 향후 공무원 등 안정적인 급여생활자 전용상품, 동산담보 대출 상품 라인업(Line-up) 추가를 통해 고객층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법인장은 WB파이낸스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간의 시너지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WB파이낸스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는 네트워크, 고객,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트워크와 고객 수도 캄보디아 내 한국계 금융기관 중 1위로, 현지 리테일 영업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부법인장은 현지 근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큰 보람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대출을 통해 고객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루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큰 보람이다"고 말했다.

WB파이낸스의 성장전략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상반기 대비 대출 고객수 4000명 이상, 총 대출금 3000만 달러 이상 증대로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순이익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서 김 부법인장은 조직안정화, 직원융화, 소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현지 직원에게 WB파이낸스의 비전제시로 목표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우리은행 특유의 소통과 화합문화, 고객중심 서비스 마인드를 전파 중"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